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 간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

Resource Transfers with Parents and the Childbearing Intention Among Women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김 주 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im, Juhee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orly understood factors related to the recent rapid decline in fertility in Korean society. Along with Becker's child demand theory, personal psychological traits, such as independence, nurturance, and affiliation, were given special atten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cesses of resource transfers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parents on childbearing intention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both factors. Five hundred and seventy-six women in their early stage of marriage from the 2009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analyzed.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cker's child demand theory is not supported. Instead, the women who were not given economic support from their parents in getting a residence at the time of their

* 본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김주희(kimjh@sungshin.ac.kr)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wedding turned out to be more willing to have a child, potentially because they were more independent. Second, the women who provided caretaking and emotional support to their parents had higher childbearing intentions, potentially because they were more nurturing. In conclusion, these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hildbearing behavior of women.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micro-personal factors raised in this study when executing policies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of low fertility.

Key Words : childbearing intention(출산의향), private transfers(사적이전), resource transfers(자원이전), parent-child relationship(부모자녀 관계), psychological variables(심리적 변인)

I. 서론

여러 나라에서 저출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 소자녀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소자녀 선호는 만혼을 확산시키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소자녀를 갖게 되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도 소자녀 선호 현상이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이 가져오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함정, 소위 말하는 ‘저출산트랩’¹⁾을 겪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지표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했다. 당시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젊은 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게 했다는 것이다(은기수, 2005; 김두섭, 200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유인책과, 아동보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족친화적 직장 등의 간접적 정책이 확대되었다(정상천, 201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지난 십 여년간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만혼이라는 초혼 연령 변수를 제외하면 경제적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 시기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키우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일관성을 갖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비록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집행한 정책들이 주효진 등(2010)이 밝힌 바

1) 출생아 수의 저하는 가임여성의 수를 감소시킨다. 그 결과 다시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이상적인 자녀 수가 저하된다.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저하를 야기하면서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소득 수준의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나 자신의 소득 수준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낮은 소득과 그에 따른 낮은 소비수준을 감당해야 하는 자녀세대는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일단 저하된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엄동욱, 2009; 유계숙, 2013).

처럼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출산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간 자원 이전 개념과 개인의 가치관 내지 성향이 출산이라는 개인적 선택과 관련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전자는 일종의 경제적 관점이기도 한데 부모와 기혼자녀 간에 경제자원, 시간자원을 주고받는 행동이 기혼자녀의 출산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출산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예, 출산장려금)을 실시한 것은 공적인 자원이전(public transfer)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다른 부모 자녀 간의 경제자원 뿐 아니라 시간자원의 이전까지 포함하는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이 출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기혼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원이전을 받는 것과 출산 선택의 관계는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에 근거한 것이며,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출산 선택의 관계는 출산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들(권영인, 2014; 김나영, 2011; 이계상, 2011; 정성호, 2009)에 기초한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 내지 성향이 출산율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출산력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히 여성들 사이에 자립심의 정도라든지 가정과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Hakim, 2003), 혹은 모성애적 내지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권영인, 2014) 등이 출산의지와 관련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수준 등 객관적인 지표들에서 출산의향의 차이를 찾으려 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와 출산의향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자원의 제공과 수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의 차이에서 자립심과 모성애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읽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자원이전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이지만 부모와 기혼자녀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의 관계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자원 이전을 다루면서 자원 이전의 결정 요인을 연구하였다(고선강, 2011; 고선강, 2013; 김순미·박미려, 2008; 김지경·송은경, 2004; 문숙재·김지연, 2006; 배희선, 1998; 하석철, 2010).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고선강, 2008; 고선강, 2012a; 이형실, 2003)도 자원의 제공자로서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 중노년기 부모와 청년기 성인자녀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고선강, 2012b; 김영순·고선강, 2014; 김지경·송현주, 2008; 배희선, 1998; 이윤정·고선강, 2011)도 있으나 대부분 자원이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다.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자원이전이 자원이전의 주체들(부모 또는 자녀)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고선강, 2014; 김순미·고선강, 2012; 김영순, 2013; 이형실, 2003; 한민아·한경혜, 2004; 홍성희·곽인숙, 2014)은 부모 자녀간 자원이전과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상대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이 청년기 성인자녀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부모의 경제자원 제공과 청년기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고선강·여성연, 2013)는 있으나 부모와의 자원이전과 성인 자녀의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부모 자녀간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 행동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출산의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이 가정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장기적 출산 장려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 이론 검토

1)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resource transfers)과 출산의향

개인의 출산 결정에 대한 경제학 이론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류덕현, 2007). 우선 여성임금을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출산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Becker(1993)의 신가계 경제학(New Home Economics)적 가설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출산력은 자신의 절대소득보다는 자신이 속하는 준거집단 내에서의 상대소득에 의해 좌우된다는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세 번째는 자산소득이론으로 세대 간 이전에 기초하여 자녀를 투자재로 간주하여 자녀에 대한 투자의 내부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높다면 기꺼이 자녀를 가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투자메커니즘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자산소득이론에 기초하면 부모가 자녀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자녀라는 자산이 미래에 가져올 수익(노후소득 보전)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자원이전과 출산 결정은 자산소득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지만, 자산소득이론 보다는 Becker의 자녀수요이론이 더 적절하다. 자녀수요이론(Becker, 1993)에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녀를 효용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수요,

즉 자녀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는 가계의 총소득과 자녀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자녀 가격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 뿐 아니라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부모의 시간까지 자녀의 가격에 포함된다. 자녀는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와는 달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장재와 부모의 시간이 결합된 가정생산물(household product)로 본다.

Becker(1993)에 의하면 가계의 효용함수는 자녀와 다른 가정생산물을 포함한다. 즉 가계는 자녀 소비(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가정생산물들의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가계는 예산제약을 갖는다. 가계의 총소득은 자녀를 소비하기 위한 비용과 다른 가정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나뉘는데, 몇 명의 자녀를 소비할 것인지, 몇 개의 다른 가정생산물을 소비할 것인지는 자녀의 가격과 다른 가정생산물의 가격, 가계의 총소득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가격과 다른 가정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하고 자녀를 정상재로 가정할 때,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가계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가족 구성원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 과거와 같은 노동시간을 유지해도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총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가족에게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이 발생하여 총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이 변화하거나 노동시간의 변화는 순수하게 가계의 총소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가격(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동시에 자녀의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부모의 시간

당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자녀의 가격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이전소득의 발생은 자녀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가계 총소득만을 상승시키므로 자녀의 가격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자녀 수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부모가 결혼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 가계에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이 된다. 결혼한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 받는 경우 가족원의 임금율이나 노동시간의 변화 없이 성인자녀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성인자녀 가계의 가계소득 상승으로 인한 소득효과로 자녀수요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부모가 성인자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녀가 결혼으로 독립한 후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은 자녀가계에는 이전소득이 되고, 이러한 이전소득은 자녀에 대한 수요, 즉 출산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결혼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계의 총소득 감소를 의미하므로 자녀에 대한 수요, 즉 출산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2)

결혼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돌봄 등을 제공하거나, 부모로부터 가사일 등을 지원받는 것은 시간자원 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Becker(1993)의 시간배분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시장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얻어낸 시장재, 재화와 서비스에 가사노동시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가정생산물, 그리고 여가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창출한다. 가계는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 성인자녀가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보는 것,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결합된 가정생산물을 만드는 활동이다.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에서 가계는 자녀를 소비하거나 다른 가정생산물들의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다. 자녀를 소비하기 위해서도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가정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도 시간비용이 필요하다. 시간제약 하에서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 소비에 필요한 시간비용의 제약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결혼한 성인자녀에 대한 시간자원 제공은 성인자녀의 시간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성인자녀의 늘어난 가용시간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향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Becker의 가설과 경쟁관계(Freedman, 1976)에 있는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가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가설 또한 소득과 출산과의 불일치를 이해하고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상대소득가설은 잠재적 가구주가 자신이 원하는 취향의 생활방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과 출산을 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둘 다 미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양식의 취향은 원가족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 수준, 즉 소득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비해 자신의 소득이 낮아 그러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상대소득가설은 자녀를 가지려는 부모의 입장, 즉 자신들이 갈구하는 수준의 생활양식에, 베커

2)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출산이 증가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해 온 현상을 Becker는 자녀수요를 양과 질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소득상승은 자녀의 양(자녀 수)에 대한 수요 보다 는 자녀의 질에 관한 수요(양질의 자녀 양육)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양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자녀수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의 New Home Economics는 자녀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려는 부모의 열망, 즉 자녀에 대한 질적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두 가설은 상호보완적이며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둘 다 필요하다(Freedman, 1976)고 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미국사회의 출산율의 변화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이 상대소득가설은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검증 받게 되면서 비판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출산 결정권을 남자가 갖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소득과 여성의 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생활양식 취향을 결정하는 것은 비단 가족 배경만은 아니라는 점 등(Freedman, 1976)이 비판의 요지이다. 상대소득가설이 거시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미시적으로는 맞지 않음(Olneck & Wolfe, 1978)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유럽 16개국에 대한 검증에서는 상대소득이 출산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부정되기도 했다(Wright, 1989). 대신 출산력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가계경제학이 더 유용함을 제안했다.

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수요이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2) 심리적 변인

경제적 혹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낀 학자들 중에는 연구의 초점을 심리적 변인으로 옮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적 연구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탈근대주의는 탈물질주의적 학습 혹은 지향, 자아실현, 개인자유 가치화, 정신적 안정,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개인적 관계 등을 지향하고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성호, 2009). 여성은 결혼여부, 배우자, 결

혼 시기, 자녀 출산여부, 자녀 수, 출산 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한다(이재상, 2011)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자녀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결정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 또는 부부의 가치관 혹은 심리적 요소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나영, 2011)이다.

심리적 변인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틀은 Hakim(2003)이 제시한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이다. 이 가설은 미시적 수준에서 출산 결정 요인을 보는 것으로 여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Hakim(2003)은 출산율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태도와 가치관을 그 변화의 동력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선호이론이 흥미로운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같으면 출산 동기도 같으리라는 관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Hakim 2003). 즉 모두가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지는 않으며 비물질적 동기도 작용하여 외부적 자극 없이도 내재적인 선호에 기초하여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서로간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내재적 선호에 따라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마미정, 2008). Hakim(2003)은 여성들의 성향을 가정지향적, 적응적, 직업지향적(각각 20%, 60%, 20%) 등 세 부류로 나누었고, 이 세 집단 간 분명한 출산율의 차이가 있다 했다. 가정지향적 성향을 가진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직업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여성들의 출산율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은 세 부류의 여성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변인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실제 더 많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것이다(권영인, 2014). 또한 과도한 헬리콥터부모역할을 경험하는 대학생 자녀는 심리,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음으

3) 상대소득가설을 이용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일정 부분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다(엄동욱, 2009; 유계숙, 2013).

로써 부모와 갈등관계를 가지게 되어 희망자녀수가 감소할 수 있다(유계숙, 2014)고도 했다. 이는 자립심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 부모에게 의식주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쉐어하우스 혹은 패러사이트 싱글의 급격한 증가(아마다, 2004) 현상과 연결시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겠다.

출산 의지가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외국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면 아동기와 사춘기 동안 부모와 경험은 출산 의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돌봄, 보호,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성격적 특성이 길러지는데(Miller, 1992) 사랑을 주는 모성애적 기질은 부모됨의 가장 긍정적 결과이기 때문이다(Thompson & Lee, 2011). 다시 말해 어려서 긍정적 가족생활 경험을 되살리기 위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성애적이고 관계지향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강한 출산 동기를 발달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소자녀 현상의 흐름 속에서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차별출산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지금까지 초혼연령, 여성의 교육수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여부, 경제적(소득)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성 역할 의식 수준이 차별출산력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초혼이 늦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초혼연령 변수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변인들이 항상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선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관계가 역비례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의 2,30대를 대상으로 Miller(1992)가 분석한 것처럼 교육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출산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들에서도 종종 뒷받침되어 왔다(김두섭, 2007; 유계숙, 2009). 여성들에게 높은 교육수준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함으로써 출산 동기를 낮춘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근거로 김태현 등(2006)은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큰 흐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구의 낮은 출산율은 교육비의 지출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의 높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출산장려정책 수혜의 무의미한 영향 등이 원인(염지혜, 2013)이라고 했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2000년 이후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박수미, 2008)에서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둘째 출산 의향에 유의하지 않으며 학력도 포함된다 했다. 20대와 30대 기혼 및 미혼여성 2560명의 차별출산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옥, 2011). 이러한 경향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904가구에 대한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임현주, 2013).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기로 하자.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향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정성호(2010)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개인이 출산을 결정에는 직접비용의 영향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포기되는 간접비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그런 이유로 부부의 임금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임금이 강력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남성의 임금과 달리 여성

의 임금은 출산에 대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 임금이 증가할수록 출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노동시장의 기회비용은 증가되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수준이 향상되면 이는 출산에 부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진숙·김태원, 2014)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가 한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송헌재·김지영, 2013).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이 비활동 여성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결과도 있다. 김태현 등(2006)은 경제활동 참가 중인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가 비참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는 최근의 연구(송헌재·김지영, 2013)도 있다. 2003년 전국출산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황정미(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 취업 자체가 출산율을 낮추지는 않았고, 15세에서 44세 사이 유배우 여성의 경우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1.8명, 비취업여성의 출산율은 1.7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한편 출산율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보다는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직업의 안정성이다. 예를 들면 최세은과 옥선화(2003)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이 교사, 간호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과 일반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중간집단은 다른 근로집단이나 무직인 경우보다 결혼을 빨리하여 출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직업의 안정성과 결혼 및 출산의 관련성을 시사한 연구이다. 김두섭(2007)도 1998년 이후 출생아 수는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짐을 발견하고 고용 안정성이 주요 변인이라 했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지위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의 직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종사상 지위와 출산과의 관계에서도 고용

이 안정적인수록 높다고 했다(이현옥, 2011).

다음으로 경제적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적 수준과 출산율이 역비례,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지는 낮다는 연구 결과들(신윤정, 2008; 이현옥, 2011; 임현주, 2013; 이세영·홍달아기 2014; 정성호, 2010)이 있다. 반면 경제적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구총소득과 출산수준 간에는 V자형, 즉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출산수준이 낮아지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양자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김두섭, 2007)이다. 박수미(2008)는 둘째 출산의향은 소득과 관련이 없다 했으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둘째아 출산을 연기했던 동유럽 국가들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성용(2009)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가 순자산 및 월평균 소비지출이 높다(송헌재·김지영, 2013)는 연구 결과와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보다 월소득 450만원 이상 가구가 가장 높은 출산의지를 보였다(안윤숙·이상호, 2010)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제 성 역할 의식 수준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들을 보기로 하겠다. 유럽 사회 내의 출산율의 다양성은 학자들로부터 하위급 출산율과 양성평등 의식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돌리게 했다. 이를테면 북구와 프랑스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독일의 중간 출산율, 남유럽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었다(이재경 외, 2005). 그 결과 이를 흔히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하는, 즉 개발 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장지연(2005)은 노동시장의 성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출산율과의 관련성은 매우 일관성이 있으며 출산율이 높

은 국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여성비’가 높은 국가들이라 했다.

출산을 측면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주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은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상대적으로 출산 국가(2003년, 1.89명, 1.71명)의 정책의 성공요인으로 본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2003년 1.42명, 1.29명)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대표적인 저출산국가가 되었으며, 가정 내 가사 및 육아분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일본의 출산을 저하의 한 원인이라고 했다(류덕현, 2007). 이를테면 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일수록 출산의지가 강하며, 실제로도 모던 커플의 출산율이 전통적 커플의 출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orr & Short, 2004). 또한 취업 여성만을 보았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즉 성 형평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지가 높다는 것(박수미, 2008)이다.

한편 성 역할 의식 수준과 출산 의지가 반대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 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가족 내 성평등이 출산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 즉 오히려 가부장적 의식이 둘째아, 셋째아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성용(2009)은 성평등 관점보다 부모자식간의 관계 혹은 가족주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부양 모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결혼의향이 더 높다(진미정·정혜은, 2010)는 결과에서 출산 의향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성역할 의식이 뚜렷할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출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효진 외, 2010).

이상에서 살펴 본 차별출산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만혼을 제외한 다른 사회인구적 변인

들은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흔히 거론된 성 역할 의식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도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 출산의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부모와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기 기혼여성과 양가 부모와의 자원이전 행동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혼기 기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양가 부모와의 자원이전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신혼기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은 어떠한가?
2. 신혼기 기혼여성의 부모와의 자원이전 행동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분석 자료 및 연구 표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세에서 44세 미혼남녀 3314

명과 기혼여성 3585명을 대상으로 각각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가구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이삼식 외, 2009). 이 조사 자료의 장점은 기혼여성들의 일반적인 결혼과 출산에 관한 사항⁴⁾과 더불어 기혼여성들의 부모 및 시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조사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출산에 관한 조사들은 조사응답자와 응답자 가구에 관한 사항들만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응답자와 부모(시부모)의 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와 시부모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중 기혼여성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혼여성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가구관련 특성, 응답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 가족생활, 결혼과 임신출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자녀계획 및 양육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 조사자료 중 자녀계획, 응답자와 가족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결혼에 관한 사항, 부모와의 자원이전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결혼 후 5년 이내의 기혼여성들로 연구표본을 제한하였다. 또한 원국적이 한국이고,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양가 부모와의 자원이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가 부모 모두 사망한지 1년이 넘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576명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표본에 포함된 기혼여성

576명의 평균 연령은 30.4세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20세~24세 사이가 25명 4.3%, 25세~29세가 240명으로 41.7%를 차지하였다. 30세~34세가 230명으로 39.9%, 35세~39세가 63명으로 10.9%, 40세~44세가 18명으로 3.1%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207명 35.9%)와 고등학교 졸업자(204명 35.4%)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37.3%가 취업상태였고, 62.7%는 미취업 또는 구직상태였다. 평균 결혼기간은 약 2.22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5년 이하의 신혼기 기혼여성만을 연구표본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자녀수는 0명(무자녀)이 32.1%였고, 1명의 자녀를 두었거나 첫 자녀를 임신 중인 사람이 298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16.1%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하는데 평균값이 315.44만원 이었다. 가구소득의 중위수는 300만원이었고, 1분위수가 200만원, 3분위수가 380만원이었다.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서 상중하로 나눈 결과 가구소득 하위집단, 월평균 소득이 1분위수 2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179명으로 31.7%였고, 상위집단에 속하는 380만 원 이상이 145명 25.2%였다. 소유주택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221명으로 38.4%를 차지하였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355명으로 61.6%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이 신혼집을 마련 비용을 부부 스스로 준비한 경우가 약 59.2%,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33.2%로 부부 스스로 신혼집 비용을 마련한 사람들의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신혼집 마련과 비교하여 결혼 비용을 부모가 지원해 준 비율이 더 높았는데 45.8%가 결혼 비용 마련 시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44.6%는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4)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는 주로 응답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응답자의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문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1〉 변수의 조직적 정의와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		조직적 정의	변수 값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만 나이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의 5개 집단으로 구분		20-24세	25(4.3)	30.4세 (4.02)
			25-29세	240(41.7)	
			30-34세	230(39.9)	
			35-39세	63(10.9)	
			40-44세	18(3.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등학교 졸업 이하(준거집단), 2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분		중학교 이하	4(0.7)	
			고등학교	204(35.4)	
			2년제 대학	143(24.8)	
			4년제 대학	207(35.9)	
취업	0=비취업(구직활동 포함) 1=취업		대학원 이상	18(3.1)	
			취업	215(37.3)	
결혼기간	조사 시점(2009년 6월)을 기준으로 응답자가 남편과 혼인고를 한 시점을 계산		비취업	361(62.7)	
자녀수	응답자의 총 출생자녀 수에 조사 시점 현재 임신 중인 자녀의 수를 합산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0명	185(32.1)	2.22년 (1.26)
			1명	298(51.7)	
			2명이상	93(16.1)	
가구소득	귀택의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그를 취하여 사용 가구소득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분석: 가구소득 4분위에 따라 하위 25%(1분위)를 하, 상위 25%(4분위)를 상, 가운데 50%(2분위, 3분위)를 중으로 구분		하(200 이하)	179(31.7)	315.44만원 (182.43)
			중(200초과 380미만)	240(41.7)	
			상(380 이상)	145(25.2)	
주택소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이거나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 소유주택 있음(1)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없음(0)		소유 주택 있음	221(38.4)	
			소유 주택 없음	355(61.6)	

통계
변수

부모와 의 자원 변수 (독립 변수)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 값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부모와 의 자원 변수 (독립 변수)	신혼집 마련 도움	신혼집 마련 비용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 신혼집 마련에 양가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준거집단), 결혼 시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 집으로 들어간 경우로 구분	부부 스스로 마련 양가 부모 도움 받음	341(59.2) 191(33.2)		
	결혼비용 마련 도움	신혼집을 제외한 결혼비용 마련에 양가 부모 중 적어도 한쪽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결혼비용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준거집단)로 구분	친정·시부모 집으로 들어감	44(7.6)		
	결혼 후 친정부모의 경제적 지원	조사대상 기혼여성이 결혼 후에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구분	부부 스스로 마련	312(54.2)		
	지난 1년간 양가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지난 1년간 친정·시댁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양육비 등)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0=전혀 받지 않음 1=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	양가 부모 도움 받음	264(45.8) 257(44.6)		
	지난 1년간 양가부모로부터 가사일 도움	지난 1년간 친정·시댁 부모님께 집안일 등 가사(식사, 청소 등)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0=전혀 받지 않음 1=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	받지 않음	319(55.4)		
	지난 1년간 양가부모에게 경제적 도움	지난 1년간 친정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을 드리거나 병수발(보살핌, 병수발 등)등으로 보살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경제적 도움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을 조합하여 측정	받음	206(35.8)		
	지난 1년간 양가부모에게 병수발, 보살핌	‘지난 1년간 친정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을 드리거나 병수발(보살핌, 병수발 등)등으로 보살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물음제공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을 조합하여 측정	받지 않음	331(57.5)		
	종속 변수	출산 의향	귀하는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0=‘없다’ 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1=‘있다’ 응답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현재 임신 외에 자녀를 더 나를 계획인지 여부’를 질문하여 측정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194(33.7) 346(60.1)	
				제공함	155(26.9)	
				제공하지 않음	421(73.1)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양가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206명으로 35.8%였으며, 가사일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33.7%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지난 1년간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는 26.9%, 돌봄이나 병수발을 제공한 경우는 14.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지난 1년간 부모와의 자원이전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 보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수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354명으로 약 61.5%였다. 출산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151명 26.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71명 12.3% 이었다.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중위수, 사분위수,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와의 자원이전에 따른 출산의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표를 제시하고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20.0 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신혼기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

신혼기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자녀수,

연령, 교육수준, 취업, 결혼기간, 가구소득, 주택소유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특성의 차이에 따라 출산의향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자녀수에 따른 출산의향을 분석한 결과 무자녀인 경우 77.8%가 출산의향이 있음을 나타냈고, 자녀가 1명(임신 중인 자녀 포함)인 경우 60.4%, 2명 이상의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를 둔 경우는 32.3%가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있었다. 현재 자녀수에 따라 출산 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재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으며, 무자녀와 한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77.8%, 60.4%이며 두 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은 32.3%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약 22%는 자녀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기혼여성의 약 1/5에게는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한다는 결혼과 출산의 동일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로는 연령, 취업, 주택소유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출산의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세의 60%, 26-29세의 63.8%, 30-34세의 61.7%, 35-39세의 61.9%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대가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60%이상의 출산의향이 유지되었다. 반면 40-44세의 27.8%만이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40대의 출산의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비취업의 기혼여성보다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현 등(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결혼기간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혼기간 1년 이하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수	전체(n=576)						무자녀(n=185)						한자녀 이상(n=391)					
	출산의향			χ^2	출산의향			χ^2	출산의향			χ^2	출산의향					
	없음	백분율	빈도		있음	백분율	빈도		없음	백분율	빈도		있음	백분율	빈도			
자녀수	0명	41	22.2	144	77.8	54.571**												
	1명	118	39.6	180	60.4													
	2명 이상	63	67.7	30	32.3													
연령	20-24세	10	40.0	15	60.0	9.18†	2	25.0	6	75.0	15.44**	8	47.1	9	52.9	2.31		
	25-29세	87	36.2	153	63.8		20	22.2	70	77.8		67	44.7	83	55.3			
	30-34세	88	38.3	142	61.7		11	16.4	56	83.6		77	47.2	86	52.8			
	35세-39세	24	38.1	39	61.9		4	25.0	12	75.0		20	42.6	27	57.4			
	40세-44세	13	72.2	5	27.8		4	100	0	0		9	64.3	5	35.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75	36.1	133	63.9	1.170	13	22.0	46	78.0	2.40	62	41.6	87	58.4	2.48		
	2년제 대학	55	38.5	88	61.5		5	13.5	32	86.5		50	47.2	56	52.8			
	4년제 대학	84	40.6	123	59.4		22	26.2	62	73.8		62	50.4	61	49.6			
	대학원 이상	8	44.4	10	55.6		1	20.0	4	80.0		7	53.8	6	46.2			
취업	비취업	157	43.5	204	56.5	9.99**	18	28.6	45	71.4	2.27	139	46.6	159	53.4	0.06		
	취업	65	30.2	150	69.8		23	18.9	99	81.1		42	45.2	51	54.8			
결혼 기간	1년 이하	47	23.9	150	76.1	35.38**	21	21.4	77	78.6	4.42	26	26.3	73	73.7	24.40**		
	2-3년	108	41.4	153	58.6		12	17.9	55	82.1		96	49.5	98	50.5			
	4-5년	67	56.8	51	43.2		8	40.0	12	60.0		59	60.2	39	39.8			
가구 소득	하	74	41.3	105	58.7	1.19	11	26.8	30	73.2	1.12	63	45.7	75	54.3	0.21		
	중	87	36.2	153	63.8		15	18.5	66	81.5		72	45.3	87	54.7			
	상	54	37.2	91	62.8		13	21.7	47	78.3		41	48.2	44	51.8			
주택 소유	아니오	124	34.9	231	44.3	5.09*	25	20.3	98	79.7	.718	99	42.7	133	57.3	3.01†		
	예	355	65.1	221	55.7		16	25.8	46	74.2		82	51.6	77	48.4			

**p < .01, *p < .05, †p < .1

〈표 3〉 부모와 자원이전에 따른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수	전체(n=576)						무자녀(n=185)						한자녀 이상(n=391)					
	출산 의향			χ^2	출산 의향			χ^2	출산 의향			χ^2	출산 의향					
	없음	있음	백분율		없음	있음	백분율		없음	있음	백분율		없음	있음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혼집 부부가 마련	no	104	44.3	131	55.7	5.47*	20	25.3	59	74.7	.795	84	53.8	72	46.2	5.96*		
	yes	118	34.6	223	65.4		21	19.8	85	80.2		97	41.3	138	58.7			
결혼비용 양가 부모지원	no	119	38.5	190	61.5	0.01	23	23.5	75	76.5	.369	96	45.5	115	54.5	.197		
	yes	102	38.6	162	61.4		17	19.8	69	80.2		85	47.8	93	52.2			
결혼 후 친정부모의 경제적 지원	no	111	34.8	208	65.2	4.23*	21	19.4	87	80.6	1.11	90	42.7	121	57.3	2.44		
	yes	111	43.2	146	56.8		20	26.0	57	74.0		91	50.6	89	49.4			
지난 1년 양가부모 로부터	경제지원 수혜	no	122	36.9	209	63.1	2.48	26	22.0	92	78.0	0.01	96	45.1	117	54.9	1.25	
	가사일 수혜	yes	90	43.7	116	56.3		12	22.6	41	77.4		78	51.0	75	49.0		
지난 1년 양가부모 에게	경제지원 제공	no	134	38.7	212	61.3	0.01	24	20.5	93	79.5	1.10	110	48.0	119	52.0	.526	
	돌봄 제공	yes	76	39.2	118	60.8		16	27.6	42	72.4		60	44.1	76	55.9		
	경제지원 제공	no	165	39.2	256	60.8	0.28	31	22.3	108	77.7	0.01	134	47.5	148	52.5	.612	
	돌봄 제공	yes	57	36.8	98	63.2		10	21.7	36	78.3		47	43.1	62	56.9		
	경제지원 제공	no	198	40.3	293	59.7	4.47*	39	24.2	122	75.8	3.06†	159	48.2	171	51.8	3.04†	
	돌봄 제공	yes	24	28.2	61	71.8		2	8.3	22	91.7		22	36.1	39	63.9		

* $p < .05$, † $p < .1$

76.1%로 가장 높았고, 결혼기간 2~3년인 경우 58.6%, 4년 이상은 43.2%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산의향을 갖는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보다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이 더 높다고 한 송헌재와 김지영(2013)의 연구와 같이 자산이 출산의향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둘째아 출산의 관계를 연구한 이성용(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185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고, 한자녀 이상을 가진 391명의 분석 결과 결혼기간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대 초반의 75%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20대 후반은 77.8%로 약간 높아지며, 30대 초반이 83.6%로 상승하다가, 30대 후반은 75%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0대 보다는 30대 초반의 출산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은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의 자원이전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

신혼기 기혼여성의 양가 부모와 자원이전과 출산의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전체를 분석한 결과 신혼집 마련 시 부모의 지원여부, 결혼 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지난 1년 간 양가 부모에게 돌봄 제공 여부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기혼여성의 출

산의향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5.4%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우 55.7% 보다 출산의향이 높았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출산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56.8%로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산의향 65.2% 보다 낮았다. 신혼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 후에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출산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는지의 여부는 한자녀 이상을 가진 기혼여성 집단을 분석한 결과에도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 1년간 양가 부모와 경제자원, 가사노동 및 돌봄 교류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양가 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돌봄이나 간병의 제공은 자녀의 수에 따라 집단(무자녀, 한자녀 이상)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에도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3.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 요인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출산의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출산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조사대상자 전체(n=516),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집단(n=166), 한자녀 이상을 가진 기혼여성 집단(n=350)에 대해 각각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출산의향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와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4〉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 요인

	모형 1 진체(n=516)				모형 2 한자녀 이상(n=350)			
	계수	오차	승산비		계수	오차	승산비	
통제 변수	연령	1.016 **	.277	2.763	.974 **	.333	2.650	
	연령제곱	-.016 **	.004	.984	-.015 **	.005	.98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92	.221	.747	-.241	.253	.786	
	취업 (미취업)	.190	.262	1.209	.127	.312	1.136	
	자녀수	-.878 **	.169	.415				
	결혼기간	-.415	.092	.661	-.605 **	.115	.546	
	로그소득	-.050	.269	.952	-.285	.302	.752	
	주택소유(소유주택 없음)	-.311	.217	.733	-.385	.248	.681	
	신혼집 부부가 마련 (신혼집 마련 부모지원)	.433 †	.238	1.542	.438 *	.271	1.549	
	부모집으로(신혼집 마련 부모지원)	.436	.437	1.547	.765	.498	2.150	
독립 변수	결혼비용 부모 지원(결혼비용 부모지원 없음)	.272	.225	1.312	.338	.259	1.403	
	결혼 후 친정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없음)	-.425 †	.214	.654	-.286	.249	.751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지원 수혜(없음)	-.165	.260	.848	-.298	.297	.743	
	가사일 도움 수혜(없음)	.079	.267	1.082	.251	.307	1.286	
	지난 1년간 부모에게 돌봄 간병 등 제공(없음)	-.423	.296	.655	-.254	.348	.776	
	상수항	1.362 **	.414	3.902	1.186 **	.465	3.275	
		-13.200	4.394		-11.925	5.263		
	모형 적합도	Nagelkerke R ²						
		.270			.207			
		114.28(p<.001)			55.86(p<.001)			

** $p < .01$, * $p < .05$, † $p < .1$

3개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중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chi^2 = 22.18$, $p = .10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모형 1(전체 표본)과 모형 2(한자녀 이상을 가진 기혼여성)는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20%, 2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기혼여성 전체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모형 1) 부모와의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신혼집을 부부 스스로 마련했는지, 결혼 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했는지의 여부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변량 분석결과(<표 3> 참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와의 자원이전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모형에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신혼기 기혼여성은 신혼집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 결혼 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난 1년간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한 경우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승산비를 비교해 보면 양가 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의향에 대한 승산이 약 3.9배 높아지고, 신혼집을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한 경우와 비교하여 출산의향에 대한 승산이 약 1.5배 높아진다. 반면 결혼 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출산의향에 대한 승산이 약 0.6배로 감소된다.

통제변수들 중에는 연령과 자녀수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주택소유 여부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연령의 출산의향에 대한 영향

력은 연령이 어느 수준(약 31.7세)까지 증가하는 동안은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에 따른 출산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

한자녀 이상을 가진 기혼여성들의 경우(모형 2) 신혼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했는지, 지난 1년 동안 양가 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의 제공 여부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과 결혼기간이었다. 연령은 모형1의 결과와 유사하게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출산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의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신혼기 가정의 기혼여성과 부모와의 자원(경제 및 시간)이전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적인 결과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신혼기 가정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기 가정의 기혼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결혼할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부부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기혼여성들보다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

로 신혼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출산 의향이 높은 것은 신혼기 가정의 경제적 자립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신혼집은 신혼기 가정의 경제생활에서 매우 큰 규모의 자산이다. 신혼집 마련을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 후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기혼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결혼 형성 과정과 신혼기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은 결혼 형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녀출산과 같은 가정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는 본 연구의 근거가 되었던 Becker의 자녀수요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신혼기 가정이 부모의 도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것 보다 개별 가정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출산의향 결정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가정을 시작할 때 신혼집 마련 등에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출산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력을 이해함에 있어 심리적 변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초기의 경제적 자립성이 결혼 이후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분석한 자료의 제한으로 심리적 변인으로 자립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부모로부터의 자립심 정도와 출산 의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부모에게 돌봄이나 간병 등 시간적 자원을 제공한 사람들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두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일상적 도움을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앞서 본 자립심 내지 독립심 변인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일상적 행동에서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질 경우 출산 의지가 높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설명은 이론적 배경에서 본 바 있듯이 모성애적 기질 내지 관계 지향적 성향을 가질수록 출산 의지가 강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성향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심리적 변인은 다시 확인된다. 그리고 출산력과 관련해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제언한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가정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신혼부부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적이전을 통한 출산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예, 출산지원금)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예비부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집 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안정적 주거지원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하면 반드시 출산을 한다는 인식이 많이 희박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약 20%가 출산의향이 없거나 출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독립적인 주거마련은 결혼 후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신혼기 가정의 객관적 경제자원의 수준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신혼기 가정의 가구소득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출산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주택소유 여부,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와의 자원이전을 고려했을 때, 신혼기 가정의 주택소유와 기혼여성의 취업의 출산의향에 대한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즉 단순히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을 비교하면 주택을 소유했거나 취업을 한 기혼여성들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와의 자원이전을 고려하면 주택소유 여부 보다는 신혼집을 마련한 방법,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지, 부모에게 시간자원을 제공했는지 등의 세대 관계와 자립성이 출산의향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연령은 출산의향에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며,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동일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에서 44세의 신혼기 기혼여성들이다. 연구결과 20세부터 일정 수준(약 31.7세)까지는 연령이 상승하면 출산의향을 갖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가, 일정 연령에 다다른 후에는 출산의향을 갖는 여성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산은 여성들의 생물학적 연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여성들의 출산 가능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 신혼기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이 꺾이는 연령대를 연장한다면 출산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연령은 발견하였으나, 출산의향의 방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하지 못하였다. 특정 연령에서 출산의향을 갖는 여성들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변화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책적 적용의 측면에서 여성의 연령을 고

려한 각 연령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 정책설계가 된다면 출산 장려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가정생활주기에서 신혼기 가정은 유사한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부부의 연령에 따라 출산에 대한 요구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0대 초반에 신혼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과 30대 후반에 신혼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은 다를 것이며, 이들이 출산의향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연령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출산장려 정책에 가정생활주기와 기혼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 신혼기 기혼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현재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의향과 한 자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것이라 보고 본 연구는 첫째 자녀 출산의향,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의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표본의 한계로 첫째 자녀 출산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각각 변수들의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신혼기 가정의 연구표본을 확보하여 출생순위 별 출산의향의 영향요인을 연구한다면 저출산 대응정책에 보다 정교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약 20%가 뚜렷한 출산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신혼기 기혼여성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들은 연령을 통제한 상황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의향을 갖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을 장려하

기 위해서는 신혼기, 결혼초기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2) _____(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3) _____(2012a).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03-121.
- 4) _____(2012b).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5) _____(2013).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31-144.
- 6) _____(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79-101.
- 7) 고선강·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8) 권영인(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3(2), 251-268.
- 9) 김나영(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26, 5-23.
- 10)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11)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2)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13) 김영순(201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김영순·고선강(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15)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16)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17)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18) 류덕현(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공공경제, 12(1), 39-74.
- 19) 마미정(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20) 문숙재·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9-329.
- 21)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22)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송헌재·김지영(2013).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15(1), 3-27.
- 24)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

- 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25) 안윤숙 · 이상호(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227-258.
- 26) 야마다, 마스히로(山田昌弘)(1999) (김주희 역) (2004).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서울: 성신여대출판부.
- 27) 엄동욱(2009). 우리나라는 저출산합정에 빠진 것인가? -저출산합정 가설의 검증과 함의-. 한국인구학, 32(2), 141-159.
- 28) 엄지혜(2013).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5, 43-63.
- 29) 유계숙(2009). 저출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30) _____(2013).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저출산트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41-151.
- 31) _____(2014). 헬리콥터부모 역할이 대학생자녀의 출산의향과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21(3), 5-12.
- 32)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102, 25-35.
- 33) 이삼식 · 최효진 · 오영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가족부.
- 34)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0.
- 35) 이세영 · 홍달아기(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3-28.
- 36) 이윤정 · 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37) 이재경 · 조영미 · 이은아 · 유정미(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 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33-166.
- 38) 이재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39) 이진숙 · 김태원(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8(1), 3-16.
- 40) 이현옥(2011). 한국 여성의 출산행태 결정 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1)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42) 임현주(2013). 인구 · 사회학적 변인, 경제변인, 양육 · 출산 변인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유아교육연구, 33(3), 35-58.
- 43) 장지연(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45-56.
- 44) 정상천(2014). 저출산문제: 프랑스 사례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327-359.
- 45) 정성호(2009).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사회과학연구, 48(2), 1-22.
- 46) _____(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49(1), 69-91.
- 47) 주효진 · 광경희 · 조주연(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 48)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49) 최새은 · 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 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 50) 하석철(2010). 부모 자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2), 101-136.

- 51) 한민아·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52) 홍성희·곽인숙(2014). 성인자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70-91.
- 53)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1(3), 99-132.
- 54) Becker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Boston: University Press
- 55) Easterlin, R. A.(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s. in *Family Economic Behavior*, Eleanor B. Sheldon, ed. Philadelphia: Lippincott.
- 56) Freedman(1976). Fertility, aspirations, and resources: A symposium on the Easterlin hypothe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4), 411-415.
- 57) Hakim, C. (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349-374.
- 58) Miller, W. B.(1992). Personality traits and developmental experiences as antecedents of childbearing motivation. *Demography*, 29(2), 265-285.
- 59) Olneck, M. R., & Wolfe, B. L.(1978). A note on some evidence on the Easterlin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953-958.
- 60) Thompson, R., & Lee, C.(2011). Fertile imagination: young men's reproductive attitudes and preference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9(1), 43-55.
- 61)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62) Wright, R. E.(1989). The Easterlin hypothesis and European fertility r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5(1), 107-122.

- 투 고 일 : 2015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4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12일